

[문화비축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요약 (가나다 순)

문화비축기지	성명	제목	스토리 요약
	문 채 언	금단(錦團)의 구역	문화비축기지가 더 이상 금지(禁)하고 단절(斷)해야하는 곳이 아닌, 아름다운(錦)것들이 모이는(團) 금단(錦團)의 구역이라는 의미를 담은 시
	박 계 현	육아b축기지 : b축이가 다 키웠어	5년간 비축기지와 함께 경험하고 성장해온 아이들의 육아일기를 문화비축기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8살, 7살 남매를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옮겨 적은 이야기
	박 웅	자연 님은 어때요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연을 벗 삼은 인간은 행복하지만, 과연 자연도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담은 대화록
	박 현 아	성산이와의 두 번째 외출	석유비축기지와 문화비축기지를 가로지르는 공간적/시간적 맥락을 배경으로, 외계인 성산이와 연구원 화자가 스스로 날개를 펴는 SF이야기
	이 은 채	낭비를 줄이는 예술	잊혔던 곳에서 향수를 느끼며,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감탄과 기대를 담은 이야기

[문화비축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문채언

금단(錦團)의 구역

- 금단(禁斷)에서

나는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내 이름을 마구 부르짖던 많은 이들은
어느 새 나를 서슬 퍼런 눈으로 흘겨보며
두려워하고
세상에 손 한번 뻗기도 전에 나를 잠재워야 한다며
「금단(禁斷)」
내 이마에 깊게 박힌 원치 않은 이름표
멀리서 들리는 생명의 지저귀음
나의 귀통이에 간신히 걸려있어
가끔 누군가 다가오는 날에는
홍측한 내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일 밖에는
해가 뜨면 뜰수록 바깥세상은 시끄러워지는데
나의 구역엔 오직 고적한 안개뿐인

- 금단(錦團)으로

하루는 한 사람이
그 다음 하루는 두 사람이
나를 씻기며 입히고
어느 날엔 세 사람이 와 나에게 새로운 표정을 그려주네

희뿌영던 것들을 파랗게 칠하니
어느 덧 안개가 걷히고 내 이마의 상처도 희미해지고
향도 기억나지 않던 푸른 것들이 이제는 마구 돌아나

지나가던 이들은 멈춰서 손길을 내어준다

그득히 차오르는 나의 너른 잔디에

젊은이는 목 놓아 별을 부른다

별 장단에 맞추어 여인은 가벼운 춤을 춘다

아이들은 그들의 얼굴을 흙으로 그리고

노인은 흐리지만 묵직한 가락들을 꽃잎에 써내려간다

「금단(錦團)」

누구 하나 모나지 않은 광휘로운 구역

손끝에서 벌어지는 찬란한 것들

주제 :

[문화비축기지는 더 이상 금지(禁)하고 단절(斷)해야하는 곳이 아닌,
아름다운(錦)것들이 모이는(團) 금단(錦團)의 구역이다]

비단 금, 모일 단을 써 비단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모이는 뜻의 [금단(錦團)의 구역]이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과거 금단(禁斷)의 구역이라고 불리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마포석유기지에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마포석유기지를 폐쇄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입혀 문화비축기지로 재탄생시킨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 대학로, 연남동 쪽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가 다양한 재능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비촉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박계현

육아b촉기지 : b촉이가 다 키웠어

2017년 9월 20일 비촉기지와의 첫 만남 (아들4살, 딸3살)

아들이 며칠째 미열로 어린이집을 쉬고 있다. 그래서 하나둘 집 근처 공원을 순차 방문 중이다. 오늘은 얼마 전 오픈했다는 비촉기지 공원을 방문. 근데 그늘이 없다(다 아기나무들). 그리고 길도 아직 정비가 안 되어 모래알갱이가 많아 아들딸이 걷다가 쭈르륵 넘어 지기 일쑤. 드럼통같이 생긴 저 멀리 있는 탱크에 꼭 가 봐야 한다길래 그늘 없는 땀별 언덕길을 영차영차 올라서 들어가 보았다. 건축문화제 전시 중이었는데 꽤 잘해 놓았다. 아들이 우주선에 들어온 것 같다고. 내부시설이 맘에 들어 일단은 자주 방문할 예정이다.

2017년 10월21일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아들4살, 딸3살)

별게 없어서 실망했다던 문화비촉기지. 그런데 주말마다 소소한 행사 들이 있어 자주 방문 하게 된다. 오늘은 사물놀이도 보고 언덕을 올라 탱크 6군데를 다른 날보다 꼼꼼하게 견학했다. 탱크 언덕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는 풍경도 멋지다. 근데 이상하다. 첫인상이 별로였던 공원이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매력적이다. 문화공원답다랄까.

2018년 5월19일 야시장이 뭐야 (아들5살, 딸4살)

며칠간 장마 같은 폭우가 오더니 하늘이 모처럼 너무 맑고 예뻐졌다. 가까운 종마목장으로 마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올 꼬마들 단골 아지트 비촉기지에 들렀다. 토요일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서는 야시장 구경차 들렀는데 딱히 살 것은 없고 고기도 먹고 온 터라 푸드트럭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올 꼬마들에게 야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8년 6월 2일 올 동네 자랑 비촉기지 (아들5살, 딸 4살)

얼마 전 야시장이 재미있었는지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졸라서 방문한 비촉기지. 요기할 푸드트럭이 조금 있고 돛자리 깔고 버스킹 공연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런 곳이 우리 동네라니 축복받았다. 우리 집 꼬마들도 익숙해져서 트럭에서 파는 전구에

담아주는 음료수 하나씩 주문해 주면 마시며 맘껏 뛰어다닌다. 돛자리를 깔뻥했어도 동그란 주황색 매트(레슬링 매트같은)를 무료로 대여해줘서 편히 쉴 수 있고 야외에 꼬마들을 위한 대형 블록들도 있고 피아노도 놓여 있어서 실력 있는 분들은 마음껏 연주도 가능하다.

나무에 천으로 엮어 만든 전통 퓨전 그네도 있어서 올 아이들 타는 내내 까르르까르르~ 너무 신이 나서 우리 꼬마들의 웃음이 멈추지 않는 육아에 안성맞춤 공원 같다.

2018년 8월15일 알로하폴장 in 비축기지 (아들5살, 딸4살)

오늘은 광복절이다. 올 집 꼬마들과 세 시간 낮잠 내리 자다가 느즈막이 오후 5시 알로하 폴장이 열리는 비축기지로 향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바캉스. 비축기지 에서 아이들을 위해 대형폴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파라솔에, 썬베드에, 정말 바캉스 제대로 즐긴 하루였다. 폴장 운영이 오후 2시에서 7시까지라는데 아무래도 뜨거울 때 를 피해서 5시 즈음 가니 한산하고 좋았다. 늘 계절마다 그리고 달마다 개성 넘치는 이벤트로 기대 넘치게 하는 이 곳! 올 동네에 있다는 것이 호강이고, 너무 사랑해 비 축기지♡

2018년 8월25일 일본에서 오신 손님(아들5살, 딸4살)

일본 살 때 친가족처럼 지내던 아키코 언니 가족이 4년 반 만에 한국에 놀러 왔다. 낮 시간엔 서울 도심 관광지를 안내해주고 해 질 무렵에 야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비축기지를 찾았다. 언니가 한국드라마를 보면 공원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하 고 외치던 게 인상적이었다 하여 비축기지 공원에 자리 잡고 앉아 경험하게 해주었다 (흐뭇).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공원에서 함께 여유 있는 주말을 보내니 행 복하다 행복해!

2018년 12월 23일 작은 썰매길 몸 놀이터(아들5살, 딸 4살)

우린 썰매 타러 비축기지 간다! 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비축기지 메인 탱크 6에서 빙글빙글 내려오는 우주선 같은(아들 표현) 길을 썰매 길로 만들었다. 썰매 개 장 소식이 금방 입소문이 나서 차레를 기다리는데 20분이 넘게 걸렸지만 올 꼬마들이 환호하는 모습에 대기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2019년 4월6일 방울이의 낮잠 여행(아들 6살, 딸 5살)

오늘 우리 집 꼬마들의 오전 일정은 우리 가족이 너무 사랑하는 비축기지 방문이 예 정되어 있었다. 이름도 너무 예쁜 '활짝 책 놀이터'행사도 있고 행사 중 공연으로 편

버블공연이 있어 예약도 해놓았다. 안타깝게도 난 출근을 해야 해서 남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가주었는데 너무 진지하고 재미있게 공연을 잘 보았다고 (나중에 비촉기지 직원분이 울 꼬마들 사진도 예쁘게 잘 찍어 따로 메일로 보내 주셨다)한다. 나 같은 어린 유아들이 있는 가족에게 역시나 즐겁게 놀기 좋은 곳이라고 확신했던 하루다.

2019년 8월10일 문화비촉지에서 야간 영화를 (아들6살, 딸 5살)

작년에도 비촉기지 알로하 풀장에서 아이들과 여름을 정말 핫하게 잘 보냈는데 올해엔 수영장 규모가 더 커지고 야간개장까지 했다. 밤늦게 물놀이를 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는 행사가 있어 오늘은 영화 보러 극장이 아닌 비촉기지로 향했다. 오늘의 영화는 'ET' 글을 모르는 울 꼬마들을 위해 자막 읽어서 영화 설명해주느라고 좀 애먹었지만 야간에 풀장을 즐기며 영화도 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날 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에겐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나눠줬다지(다음엔 어른들도 좀 주세요~~ㅋ)

2019년 12월28일 벚집 생태놀이터 (아들6살, 딸5살)

남동생이 놀러와서 동네 마실 겸 비촉기지 공원에 방문했다. 겨울 생태놀이터 행사 중이라 회전 자전거도 있고 다라이 썰매도 대여해주고 벚집 생태놀이터에서도 신나게 놀았다. 벚집이 생소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폭신평신했다며 미끄럼도 타고 트램폴린처럼 뛰어도 보고 내려오질 않았다. 그중 단연 인기 최고는 추억의 다라이 썰매! 엄마 아빠가 끌어주다 진이 다 빠졌지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니 안 밀어줄 수도 없고 결국 남편과 교대로 했다. 해질 때까지 마음껏 잘 놀다 갑니다. 비촉기지 알라뷰!

2020년 3월15일 사람없는 곳 찾아 삼만리 (아들7살, 딸6살)

코로나19가 이토록 무서운지 몰랐다.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남편회사는 재택근무, 나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매일 먹돌(먹고 돌아서면 밥하고) 먹돌.. 길게는 아이들과 7일까지도 집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적도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과 상의 후 하루에 한 번 1~2시간씩 산책을 나서기로 했고 오늘은 우리들의 아지트 비촉기지엘 오랜만에 들렀다. 모두 그대로인데 탱크 내부는 실내라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쉬운대로 아이들과 야외 탱크2에 들러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그리고 모래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사람 없는 곳만 찾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슬픈 요즘이다.

2021년 2월 6일 겨울 탱크 빛 축제 (아들 8살, 딸 7살)

내가 좋아하는 울 동네 공원 맛집인 비촉기지에서 겨울 탱크 빛 축제가 있다(블로그

이웃 추가를 해놓으니 생생한 정보 알림이 바로 뜬다)고 해서 느즈막이 나왔다. 매봉산 자락길에서부터 물고기 떼가 안내하는 길로 내려가면 짜잔~ 메인 빛 축제 공간이 나온다.

아주 깜깜해지면 더 빛나서 예쁠 것 같지만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살짝만 보고 왔다. 사람이 많아지면 피해야 한다니.. 다만 바람은 코로나19가 없던 전의 일상으로,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맘껏 뛰어놀았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했는지 이제 좀 알았으니 제발 돌아갔으면 한다.

[문화비축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박 웅

자연님은 어때요?

- 다음은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되었던 <2020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기간 중 어느 날의 ‘프린지톡 : 리뷰나잇’ 대화 중 일부이다.

(‘프린지톡 : 리뷰나잇’은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예술가, 관객, 인디스트 등이 모여 하루 동안 만난 작품과 축제를 돌아보는 자리였으며, 아래는 실제 있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쓰이긴 했지만 자의적인 재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임을 미리 밝혀둔다.)

모모 : 코로나 때문에 야외공연이 강제된 바가 없잖아 있지만, 여기 야외공연 너무 좋지 않나요?

누구 : 그러니까요. 여기 장소~ 그림이랑 작품이 어우러지는 측면도 있지만, 다 떠나서 진짜! 내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감상, 뭐 그런 것마저도 다 떠나서~ 그냥 여길 둘러봐도 저길 둘러봐도 자연의 복판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니까, 정말 청량하고 속이 뽕 뚫리고. 근데 심지어 난 지금 예술도 즐길 수 있어! 이거 완전 땡큐인 거죠.

모모 : 아무님은 원래 실내공연으로 기획했다가 야외로 변경하셨던가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나와서 하시니까.

아무 : 저희 <T2 옹벽>에서 공연했잖아요? 그게 구조적 이유도 있지만, 저희 무대 디자이너가 일몰을 공연 엔딩 시각에 맞추어~ 말 그대로 ‘자연 암전’ 어떠냐고 해서 정한 거거든요. 이야, 공연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해는 점점 저물고... 운치가 끝내줬습니다요, 해해.

누구 : 저도 오늘 그 공연 봤는데...

아무 : 아, 감사합니다! 호호.

누구 : 아유, 별 말씀을~ ...그래서 거기 메인 객석이 웅벽 안쪽이라~ 이게 약간 낯 것 느낌의 어떤 공간에 갇힌 듯한 이미지가 확실해서 극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 더라고요. 근데 뭐, 힘들거나 안 좋으신 점은 없었나요?

아무 :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 계절 상 날벌레가... 후훗. 그래도 저희 공연은 어찌되었든 해가 있을 때에 하는 거라 모기는 좀 덜한데... 대신 벌이~ ㅋㅋ.

모모 : 벌이요?

아무 : 그, 되게 큰 벌 있잖아요? 웬지 재는 쏘이면, 매우 심각한 엄청난 내상을 입을 거 같다 싶은~ 히히. 알고 보니, 웅벽에 갈라진 틈새 그 안쪽이 하필 개네들 집인가 보더라고요.

누구 : 아, 그래서 아까 관객 분들 중에 화들짝 놀라신 분 계셨구나?

아무 :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살짝... 대사 치는 와중에도 어머나~하면서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해해. 사실, 공연 전에 제가 발견은 했거든요. 한 마리가 그 객석 공간 안으로 계속 날아다니길래, 보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 동선도 나름 일정하고... 심지어 다소 규칙적인 느낌까지? 키키. 그래서 무대디자이너랑~ 어찌지? 여기 틈새를 뭐 테이프라도 사서 막아 놓을까? 아니면 벌레 기피제를 막 뿌려 놔? 공연 한 30분 전에만? 근데, 그 친구가 문득 그러더라고요. 오빠, 따지고 보면 여기가 애들 집인 거고 오히려 우리가 쳐들어와서 이 벌들 주거불가침의 자유를 훼손 중인 건데 말이야... 뭘 막고 뿌리고 하는 건, 좀 너무 하는 거 아닐까? 저도 듣고 보니...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가까워서 보면~ 우린 관객 안전이나 편의를 최대한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예술/공연 팀인 건데... 멀리서 보면 이 대자연에서 인간도 사실 똑같은 일개 동물일 뿐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들의 삶을 방해하는가 싶기도 하고...

모모 : 흠, 진짜 그러네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자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어떨지... 아, 물론 벌레나 해충 이런 관점을 떠나서 말이죠.

누구 : 자연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지요, 솔직히. ㅋㅋ. 언제 그

런 작품도 이 공간들에서 시도되어 보면 좋겠네, 자연이랑 인간의 공존이랄지~ 알고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고발이랄지~

아무 : 근데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밖에 없는~

누구 : 그렇죠! 그렇지만 또, 서로가 서로한테 솔직하게 자기 품고 있는 생각 가감 없이 속 시원히 털어놓는 과정도 꼭 작품에 담겼으면 좋겠네, 후후.

모모 : 여러 모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호호. 혹여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도 함께 대화도 좀 더 나누고 아이디어도 발전시켜 나가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내공연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볼까요? 혹시 오늘 뭐 보신 것들 있나요? ...

[문화비축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박현아

성산이와의 두 번째 외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비릿한 석유 냄새가 코를 확 찌른다. 혹 끼치는 열기, 별을 받아 잿빛으로 빛나는 금속 건물, 폐쇄된 석유비축기지 앞에서 나는 눈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이곳은 2002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곳이다. 석유로 채워 둔 공간 아래에는 우리가 ‘비밀구역 661’이라고 부르는 방공호가 있었다. 이곳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실험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월드컵 개최가 확정되고, 국가적인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하려면 이 실험들을 모두 중단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위사람들이 말했다. 월드컵이 뭐라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나는 실험체 폐기 담당자로 이곳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회색빛 우중충한 연구실에는 그동안 한국에 떨어진 운석들과 UFO의 잔해들, 생포한 외계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외계인들은 3m 두께의 방탄유리로 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 우리가 대여섯 개쯤 됐는데 첫 출근 때는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처음 입사했을 때가 떠오른다. IMF가 일으킨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뚫고 간신히 입사했던 터라 꿈과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 불황 탓에 실험 비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설비만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제대로 된 실험은 커녕 잡일만 도맡아 하다 보니 목표는 희미해졌다. 그마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나는 당장 일자리를 걱정하느라 바빴다. 꿈을 애도할 시간은 없었다.

실험체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하나씩 껐다. 그래도 정이 들어서 끄는데 약간은 망설여졌다. 실험체들은 다 AM-1101 이런 식의 고유번호가 있었지만, 우리 연구실 사람들끼리는 그냥 발견된 곳의 지명을 따서 두원이, 가평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

특히 내가 정든 녀석은 성산이었는데, 밥술만 한 크기에 파란색 미라 같은 녀석이었다. 반투명한 두꺼운 비닐 같은 무언가를 몸에 돌돌 감고서, 짙고 굵은 애벌레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비닐 같은 신체 일부가 가리고 있는 사이로 생기 없는 새까만 두 눈이 드러나 있었다. 성산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서 숨만 쉬었다. 녀석도 지구에 올 때는 목표가 있었겠지? 난 성산이한테서 나를 겹쳐 보곤 했다.

이대로 끝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저 녀석이라면 얄전하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성산이를 데리고 가서 과학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괜한 의협심에 녀석을 데리고 가서 살려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감정이 앞서서 충동적인 결정을 했다.

흰 가운으로 성산이를 돌돌 말아 들고나왔다. CCTV는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고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라 들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 밖에 나오니 해는 아직 짙고, 경기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나한테는 무언가에 열중하는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성산이를 데리고 나가려니 두근두근 심장이 내달렸다. 습하고 더운데도 성산이의 미지근한 온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성산이와 함께 내 원룸에 도착했다. 나중이야 알았는데 성산이는 명도가 아니라 채도만 감지할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래서 여태껏 잿빛의 연구실에서 죽은 듯 있었던 것이다. 성산이는 빨간색이 가득한 월드컵 경기를 좋아했다. 어떻게 그런 시각이 가능한지 의아했다. 나는 시각과 색채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성산이는 내 연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우린 20년간 함께했다. 나는 색채 감각 능력에 있어 권위자가 되었고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성산이 덕분에 색맹 치료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내 연구실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그 존재를 숨기느라 성산이는 20년간 외출을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정성을 쏟았다. 드넓은 마당과 세상의 온갖 색을 수집해 둔 방, 같이 시간을 보낼 만한 다른 애완동물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비닐 같은 성산이의 껍데기가 약간 바라보였다. 안전 문제를 핑계로 미뤄왔지만, 이

제는 녀석이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산이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이가 원래 있었던, 이제는 젓빛이 아닌 곳이다. 성산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문화비축기지를 한 바퀴 돌았다. 행사를 알리는 총천연색의 현수막들이 나폴거리고 있었다. 작열하는 여름의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이었다. 성산이는 첫 외출, 아니 탈출하던 날 이후 두 번째 외출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유모차를 밀고 매봉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야트막한 산이었지만 올라가니 달이 더 잘 보였다. 성산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닐 같은 것들이 풀렸다. 늘 성산이가 미라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성산이의 반투명한 날개가 돌돌 말려 있던 것이었다. 날개가 펼쳐지자 성산이의 파란색 매끈한 몸체가 드러났다.

자기 몸의 세배는 될 것 같은 날개를 펼치고 성산이가 날아올랐다. 나는 반짝이는 성산이의 날개를 바라보았다. 나한테도 내가 모르던 날개가 있었는데, 성산이는 내가 그걸 펼 때까지 기다려줬던 것 같다. 내가 혼자서도 연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문화비축기지가 달빛에 알록달록 빛났다.

[문화비축기지]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당선작

이은채

낭비를 줄이는 예술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서머셋 몸이 언급했던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4년에 걸쳐 500여 명을 등장시키면서 방대한 서사를 애정 어린 필치로 낸 필생의 역작이다. 전쟁과 평화는 1956년에 영화화되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당신은 마치 이 집 같군요. 고통받고 다쳤지만, 곳곳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게 말이죠.”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은 두 종류의 전쟁이 원인이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물리적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라 원유 가격을 11달러라는, 직전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인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경제적 전쟁이었다.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마포 석유비축기지였다. 1급 보안시설이라 일반 시민의 접근은 통제됐고, 간첩 대비 훈련까지 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은 긴장에 떨었다. 대량의 석유란 폭탄과 거의 동어다. 이를 잘못 관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삶에 큰 부하가 걸릴 것이 자명했으니, 이곳 직원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낸 셈이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다. 주요 보급 시설이었던 이곳은 시대가 바뀌면서 잊혔다. 운영 당시 그리 엄중하게 보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폐쇄 이후 사실상 10년 넘게 방치되었다. 다행히도 이곳의 가능성에 주목한 서울시가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석유 비축 탱크의 독특한 공간을 최대한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복원한 공간을 마련, 2017년에 시민들 품에 돌려줬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이모부는 47년생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였다. 나는 그때 10살이 갓 넘었었는데, 이모부는 어린 나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자 노력했다.

그날 그곳에 데려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의 친구 중 하나는 중간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커다란 집게 트럭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재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물건들이 한데 쌓여있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모부가 날 거기 데려간 것은 단순히 고물상을 구경시켜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물상의 뒤편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이상한 물체들이 있었다. 두 개 정도는 완전히 다 만든 것 같았고, 하나는 만드는 중인 것 같았는데, 지나치게 다양한 색감의 철골이나 부품들을 통일성 없게 사용한 모양새가, 영락없이 이곳에 들어온 폐품들을 활용한 것 같았다. 이모부는 그 앞에 나를 데려다 놓은 다음, “이거 봐, 신기하지?”라면서 머리를 조금 쓰다듬어 주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집게 트럭의 요란한 소음이 멈추고 이모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크게 대답한 다음 나를 거기 놔두고 자리를 잠시 떴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물체들과 단둘이 놓이게 되었다.

하나는 나무 위에 새가 올라간 것이었다. 나무는 철사나 폐부품으로 골격을 잡은 다음 그 위에 페인트로 색을 입힌 것으로 보였고, 그 위에 있는 새는 배 부분이 하얀 게 까치를 연상시켰다. 지금 그 작품을 다시 본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내 키는 100cm를 겨우 넘겼기 때문에, 그 작품이 거인처럼 크게 느껴졌다.

또 하나는 오토바이, 다른 하나인 만드는 중인 작품은 아마 사람이나 로봇 둘 중 하나를 구상한 것 같았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저 두 다리가 버티고 있는 뼈대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전시회를 간다던가 하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무언가를 그렇게 코앞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고물상의 주인은 지금으로 치면 ‘정크 아트’를 하던 사람이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에코아트 프로젝트(EcoArt Project)가 200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체코의 조각가 베로니카 리히터바(Veronika Richterva)가 페트병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던 게 2004년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름도 모르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모부

친구’는 시대를 꽤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었나 싶다.

모든 정크 아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어려서 비교적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규모가 컸다. 그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료가 폐부품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폐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품 실패로 해체할 때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도 종종 작품 전시회를 가는 일이 있었지만, 본업이 예술 쪽도 아니고 살기도 바빠서 그리 자주 그런 곳에 들르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가게 됐던 곳이 문화 비축기지였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다. 원래는 친구와 함께 약속이 있었지만, 오는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약속 취소를 당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했지만, 도착까지 다섯 정류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가는 건 어쩐지 아쉬웠기 때문에 그냥 내친김에 가 보기로 결정했다. 문화 비축기지는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 2번 출구에서 별로 멀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 T4였다. 버려진 파르테논신전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 공사 중인가 하는 호기심이 날 그곳으로 이끈 가장 큰 동인이었다. 웅벽과 탱크 사이 공간 등 기존 탱크 내부를 그대로 유지한 공간이라 그렇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들어가자마자 울림이 보통이 아니었다.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해도 원유를 그대로 머금고 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있다는 것도 그랬고, 층고만 15m에 달하기에 소리의 전달력이 강력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영국 테이트모던도 발전소를 개조한 덕에 인기가 좋았던데, 이곳 역시 그런 명소가 될 잠재력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소재였다. 귀가 멍멍할 정도의 울림을 가진 높이가 엄청난 오일탱크 공간에 들어간 순간, 나는 어쩐지 예전에 이모부와 찾아갔던 고물상의 아티스트와 그가 만들었던 거대한 재활용 작품의 냄새가 떠올랐다. 쇠 냄새가 녹아있는 듯한, 어딘가 단정치 못한 듯한, 그래서 더욱 정감이 가는듯한 인상의 공간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 같아서, 조금 몽클해졌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본래 있었던 것을 청소하고 재가공해서

운영하는 것은 배의 힘이 들게 마련이다. 문화 비축기지 준공 당시 기존의 설계도가 필요했는데 없어서 꽤나 고생을 했다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낙반도 발생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얻은 철골과 돌을 가감 없이 활용했다는 것을 기사에서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물론 문화 비축기지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축제와 공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전에 이 말은 해야겠다. 어떤 곳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다.